



[100세 시대 기획] 스마트헬스케어 급성장 세계는 뛰는데... 韓은 규제에 막혀 04



Economy

코스피	2010.00 (-31.04)	코스닥	669.37 (-6.28)
금리 (미국 3개월)	1.80 (-0.02)	환율 (원/달러)	1119.00 (+3.30) (2일)

6년전 아베가 쏜 3가지 화살 일자리과녁 적중 “완전 취업”

〈통화-재정-성장정책〉

☐ 자리노믹스를 엿보다

〈上〉 잃어버린 20년 탈출비결

#. 최근 방문한 일본 도쿄. 오전 8시가 넘어서서 지하철역마다 직장인들이 쏟아졌다. 청년을 비롯해 노인들까지도 저마다의 일터로 향했다. 곳곳엔 구인 잡지가 비치돼 있고, 상점들은 문 앞에 직원을 구한다는 문구를 크게 써 붙였다. 누구나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의 이야기.



일본 신주쿠역.

/채신화 기자

日 대졸 취업률 98% 기록 여성 취업률도 70% 달해 5년간 성장률 평균 1.24%

구인활동에 고령화 영향도 비정규·임시직 증가는 과제

무역협회 동경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 등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지난 2011년 91.0%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8년 98.0%를 기록했다.

여성의 취업률도 동반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11년 60.2%에서 꾸준히 올라 2018년엔 70.0%로 집계됐다. 여성 10명 중 7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일자리 호황 배경에는 '아베노믹스'가 있다.

일본은 지난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취임 후 경기 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펼쳐 왔다. 아베노믹스는 '3가지 화살'이라고 불리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연간 최대

〈日 경제성장률·대졸취업률〉 (%)

연도	경제성장률	대졸 취업률
2005	1.4	95.3
2007	1.7	96.3
2008	-1.1	96.9
2009	-5.4	95.7
2010	4.2	91.8
2011	-0.1	91
2012	1.5	93.6
2012.12 아베총리 취임, 아베노믹스 시행		
2013	2	93.9
2014	0.3	94.4
2015	1.2	96.7
2016	1	97.3
2017	1.71	97.6
2018	1.1(전망)	98

/IMF, 무역협회 동경지부 등

80조엔(약 800조원)에 이르는 양적완화 등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며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2006~2012년까지는 평균 0.31%에 그쳤으나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2013~2017년까지는 평균 1.24%까지 올랐다. 대졸 취업률 또한 2013년 90%대 초·중반에서 5년

여 만에 90%대 후반으로 커졌다.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여기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도 취업률 성장의 원인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히사시 야마다 일본종합연구소(JR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고용지표 호조가 노동력 축소 때문에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기준 일본 유효구인배율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증가한 1.37배를, 실업률은 3.1%로 각각 1991년, 199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야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지표가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결과라고 봤다.

한편으로는 일본 내 일자리는 늘어났으나 구인난이 이어지고 비정규직이 많아졌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2면에 계속>

/csh9101@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회에 참석하기 위해 김정숙 여사,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 성과 체감위해 최선”

文 대통령 ‘정부 신년회’

“기업투자 좋은 환경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부 신년회에서 ‘오늘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신년 인사말을 하면서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부 신년회를 개최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지난해 현 정부 첫 신년회는 청와대에서 열렸다. <본지 2018년 12월 24일자 1·2면 참고>

이날 신년회에는 4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 중에선 박용만 대한

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문화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정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장,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등도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면서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을 위해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했다”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새 해
함께
행복해

2019년 새해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